

10 월 19 일(수) 선라이징 콘서트 정소라 색소폰 연주회



오는 10 월 19 일(수)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(원장 박재범)에서 색소포니스트 정소라의 연주회가 개최된다.

정소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색소폰을 전공한 후 도불, Conservatoire de Lyon 에서 Jean-Denis Michat 교수, Conservatoire de Versailles 에서 Vincent David 교수를 사사하였다. 현재는 CRR de Versailles 와 Versailles Saint-Quentin-en Yvelines, Paris Saclay 대학에 재학중이다.

한국에서 전국 음악대학 심포닉밴드 콩쿠르를 비롯하여 경희대학교, 영남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이 주관하는 콩쿠르에서 목관부문 1 등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소라는 올해 프랑스 Léopold Bellan 국제콩쿨에서 1 위 및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주목 받기 시작했다.

이번 문화원 콘서트에는 특별히 박준성, Elvis Nunes Sousa, Livia Ferrara 등 세 명의 동료연주자들이 함께하여 솔로 연주 뿐 아니라 트리오, 콰르텟 등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색소폰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. 피아노 연주는 서진아가 맡았다.

프로그램으로 라흐마니노프의 'Vocalise', 생상스의 'Introduction et Rondo capriccioso', 글라주노프의 'Finale'와 함께 현재 천재적인 작곡가 겸 즉흥연주자로 각광받는 티에리 에스케쉬(현 CNSMDP 교수)의 'Tango Vituoso'를 연주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.

※ 연주자 소개

박준성(색소폰)은 연세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도불, CRR d'Aubervilliers – La Courneuve 와 CRR de Paris 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CRR de Versailles 에 재학 중이다.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국민일보, 영산아트홀 공동 주최 오르간, 실내악 콩쿠르에서 2 위를 수상 하였다.

Elvis Nunes Sousa(색소폰)는 Ecole Professionnelle des Arts(마테이라) 및 Ecole de musique et des Arts(포르투)를 졸업, 현재 CRR de Versailles 에 재학 중이다. Saxoportto Bellan 국제 콩쿠르에서 2 위(2013), 그리고 Léopold 국제콩쿠르에서 1 위를 차지했다(2015).

Livia Ferrara 는 밀라노의 Conservatoire G.Verdi, 빈의 Konservatorium Wien Privatuniversitaet 을 거쳐 작년부터 CRR de Versailles 에서 수학하고 있다. Nuovi Orizzonti Città di Arezzo 콩쿠르에서 1 위, Marco Fiorindo 주니어 콩쿠르에서 2 위 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서진아(피아노)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 학사 졸업 후 도불, CRR de Paris, CNSMD de Paris 반주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. 2003 년 아시아 쇼팽 콩쿠르에서 1 위, 파리 Flame 콩쿠르에서 3 위를 수향하였다.

○ 일시 : 2016년 10월 19일(수), 12시30분

○ 장소 : 주프랑스한국문화원

2, avenue d'Iena 75016 Paris

01 4720 8386 / www.coree-culture.org